

## 백혈병



김 병 수

우리 몸의 모든 정상 세포는 암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백혈병이란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중 백혈구의 한 종류가 암으로 변화되어 골수에서 많이 증식함으로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는 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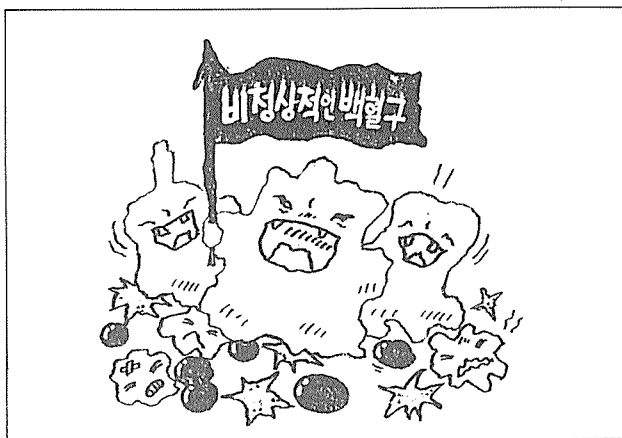
보통 암이라 함은 처음부터 한 곳에 덩어리나 혹(종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은 이런 종괴를 형성치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특징적인 종괴가 만져지질 않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며, 백혈병 세포가 혈류를 따라 전신에 돌아다니며 몸의 여러 장기에 침범할 수 있으므로 항암제의 치료가 필수적이고 모든 백혈병 세포를 없애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장

기적인 치료를 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동안 새로 발생되는 백혈병 환자가 약 5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5세 미만의 어린이에서도 약 1천5백명내지 2천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또한 확실한 발병기전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병리학적으로는 백혈구의 분화과정에서 원인 모르게 정상 분화가 되지 못하고 미분화된 세포가 계속 증식하므로, 혈액, 골수, 더 나아가 몸의 모든 조직에 침습함으로 그 기능을 파괴하여 환자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

백혈병이란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백혈구의 한  
종류가  
암으로 변화되어  
골수에서  
많이 증식함으로써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는 병이다.



확실한 원인을 모르나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조사, 유기 화학 물질, 염색체 이상 등 여러 복합적 요소가 관련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러 선천성 면역 질환에서 발병률이 높다.

백혈병의 종류로는 암세포가 임파계의 세포에서 발생하는가 혹은 골수계의 세포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 분류되며, 각각 급성인 것과 만성인 것이 있어 그 조합으로 4종류의 백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성인에게 많고 성인 백혈병의 거의 반수를 차지한다. 반면 소아에서는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65~70%를 차지한다. 서양에서 많은 ‘만성 임파구성 백혈병’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

이와같은 백혈병 종류의 차이에 따라 치료 방법과 치료 결과가 다

르다.

백혈병의 초기 증상은 발열, 빈혈, 권태감, 출혈이며 급성인 경우에 증상이 더 중하게 나타나고, 잇몸 등에서 출혈하기 쉽게 된다. 목이나 다른 부위에서 임파절 종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에서도 나타나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더욱 심하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비장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며 대단히 크게 만져진다. 또한 골수내에서 백혈병 세포의 증식으로 인하여 뼈나 관절이 아프다고 아동이 호소하게 된다. 이때 백혈병을 의심하지 않고 관절염이나 류마치스 열 등으로 오진되는 수도 있다.

진단은 혈액과 골수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백혈병 세포를 확인한 다음 어느 종류의 백혈병인지를 판정한다.



특진 (專) **어떻게 할 것인가? (3)**

치료는 화학요법이 중심이 되며 골수이식 등도 행해진다. 여러 대학에 따라 치료약제 사용법에 있어서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백혈병 치료의 대원칙은 차이가 없다. 최신 경향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여러 약제를 병용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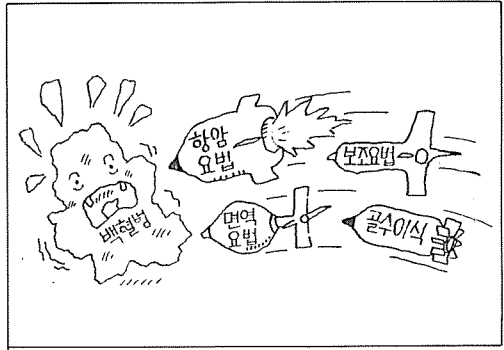
여기에 겸하여 항암제 사용 후 동반될 수 있는 감염,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전학적 문제나 암의 발생에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이해와 협조이며 치료와 동반된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움도 필요하다.

15세 미만의 소아 연령에서 백혈병은 가장 흔한 암이다. 또한 소아암은 사고에 이어 소아 사망 원인의 제2위를 점하고 있어 백혈병은 소아기에서 가장 중요한 병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소아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아 최근에는 항암제 치료 후 50~70%가 완전히 치료되며 그외의 환자도 반수 이상이 5년 이상의 생존률을 보이고 있다.

치료 기간은 약 3년 정도이나 외래를 통하여 통근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완치율이 많이 향상 되었다.



연세 암센터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러한 암 환자를 위한 특수 진료 기관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설립하여 최신 치료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 수의 암 환자가 완치되어 추적 관찰되어지고 있다.

성인의 급성 백혈병은 상대적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많아 80%가 일단 증상이 가벼워지지만 예후는 나쁘다. 만성 백혈병은 진행이 늦지만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많아 말기에 급성화하여 결국 예후는 좋지 않다.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에서는 골수 이식술의 치료가 도움이 되나 골수 이식에 적합한 형제 공여자의 존재 가능성, 골수 이식에 드는 높은 의료 비용, 골수 이식의 성공 여부 등 아직은 산재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74

〈필자=연세암센터소장〉

**15세 미만의 소아 연령에서 백혈병은 가장 흔한 암이다.**